값 폭락 나주배 수출도 끊겼다

업체들 가격 인하 요구로 선적 중단
장기화땐 저온 저장고 부족 품질 저하

국내 내수용 배 가격이 폭락한 데 이어 수출용 배도 업체들의 가격 인하 요구로 선적이 중단돼 재배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나주지역 500여 배재배 농민들은 매년 3천여t(싯가 70여억원)의 배를 미국 등지에 수출해 왔다.

나주배조합은 올해도 지난 9월5일 수출업체협의회와 5㎏ 기준 7천원선에 수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내 배 가격이 지난달 8일부터 갑작스럽게 폭락하자 수출업체들이 담합해 5㎏ 1박스당 평균 2천원선의 가격 인하를 요구, 현재 수출이 중단돼 있다.

이 때문에 나주배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2곳의 저온저장고에는 수출용 물량으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는 수출을 위해 수확한 배가 쌓여 있다.

나주배조합 금천면 유통센터에는 현재 800여t의 수출 물량이 저장돼 있으며 부덕동 저온저장고에도 70t이 보관돼 있다. 또 농가에서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물량만도 나주시 세지면 보관창고에 250t이 저장돼 있는 등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중단돼 재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배 재배 농민들은 수출 중단 사태가 오래될 경우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민 K모 (61·나주시 금천면)씨는 "저온저장고가 충분하지 못해 실온에 보관할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나주배조합 관계자는 "수출업자들이 미국 현지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며 "조만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수출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국향 그윽한 함평의 가을 만끽 하세요

내달 23일까지 대한민국 국향대전
각종 국화작품·분재 700여점 전시

"진한 국화 향기와 함께 함평의 가을을 만끽하세요"

함평 자연생태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수채화 빛 국화꽃 물결, 국화로 만든 대형 기획작품 등 국화를 소재로 한 가을축제인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나비의 고장 함평에서 열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국향대전은 숭례문, 만리장성 등 대형 기획 작품과 생태공원 전체 공간을 활용한 국화작품을 전시하고 국화 들녘에 대형 곤충 형상을 연출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게 된다.

매표소 입구 공원 진입로 400m 도로변에는 '국화 만리장성 길'이 조성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되며 행사장 곳곳에 자리 잡은 마법의 성, 첨성대, 에펠탑, 피사의 사탑, 피라미드, 거북선 등의 세계 풍물기행 국화작품들은 색다른 볼거리다.

또 700여 점의 수준 높은 국화작품과 250점의 국화분재와 곤충 모형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공원 분수대 앞에는 지난 2월 화재로 전소한 국보 1호 숭례문을 2분의 1 크기로 재현한 국화조형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공원 진입부 9만 3천㎡에는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개한 가운데 밤, 고구마 구워먹기, 콩 볶아먹기 등 토속적인 가을 먹을거리를 맛보는 이색적인 체험코너도 운영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 복분자 막걸리 일본 간다

첫 수출 선적 기념식

강진에서 생산된 복분자 막걸리와 동동주가 일본에 처음 수출됐다.

강진군은 22일 병영주조장에서 황주홍 군수와 김견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자골 복분자 막걸리'와 '청자골 동동주'시음회와 수출선적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수출 물량은 복분자 막걸리 1만병과 동동주 6천500병으로 3천만원 상당이다. 수출 막걸리는 복분자를 첨가,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도수와 용량을 조정했으며 기존 플라스틱 병에서 유리병으로 교체하는 등 포장과 디자인을 새롭게 했다. 강진군은 이 회사가 매달 2만여병씩 수출, 연간 40만달러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반가운 단비 극심한 가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단비가 내린 22일 강진군 작천면 들녘의 마늘 밭에서 한 농부가 비옷을 입고 고랑을 손질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에 다산 전시관 들어선다

도암면 귤동 마을에 90억원 들여 내년 착공 2011년 완공

강진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선생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들어선다.

강진군은 그동안 건립 장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전시관 부지를 문화재 전문위원과 군의회, 마을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암면 귤동마을 입구로 최종 확정했다.

다산기념관은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완공된다.

90억원이 투입될 3층 규모의 전시관에는 전시실을 비롯해 영상실, 학예실, 자료실과 다산학연구소, 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전시관이 신축되면 기존 유물전시관은 유배문학관으로 리모델링된다.

귤동마을 일대는 다산이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초당을 비롯해 다산유물관, 수련원, 다산학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남양주 출신인 다산은 신유교난 사건으로 강진으로 유배된 뒤 18년간 학문에 정진하면서 지방행정의 개혁과 쇄신, 토지분배, 노비제 폐지 주장 등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담양서 '아·태 천문 올림피아드' 개최

내년 11월 아시아 각국 영재 150명 참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천문 영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가 담양에서 열린다.

담양군은 최근 이탈리아 트리에스터에서 열린 국제 천문올림피아드 회의에서 '제 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개최지로 확정됐다.

담양군은 친환경 청정 지역의 이미지와 150㎜ 굴절식 망원경,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이 조성된 점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는 아시아 각국에서 중·고등부 천문 영재 10명씩을 선발, 150명이 1주일간 합숙하면서 천문에 관한 과학문제를 해결해 가는 대회로, 5회 대회는 내년 11월에 열린다.

담양군은 지역 과학영재 100여 명을 선발해 아시아 지역 청소년들과 과학 토론, 경쟁을 벌이고 남도문화를 체험하는 부대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광산구 복지행정 최우수상

전국 지자체 평가…1억원 지원금

광산구가 지난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사진〉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등 9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1종교 1가정 사랑나눔 결연', '장애인 서비스 기동대' 등 민·관 협력의 복지행정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민선 4기를 맞아 기존의 관 주도형 수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는 복지네트워크 개념을 채택했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관내 50여 종교단체가 참여해 소외된 이웃과 결연을 맺는 '1종교 1가정 사랑나눔 결연', 공무원 봉사동아리 운영, 장애인 서비스기동대 활동, 셋째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무료가입, 불우아동 결연사업 등 광산구만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밖에 인공관절 및 디스크 수술 지원, 저소득 가구 단전 해소 지원, 민간·공군병원 연계 경로당 순회 진료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지난 9월 기초생활분야 대통령상에 이어 전반적인 복지업무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아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수요계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일수 있는 능동적 복지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